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의 144명 조합장들과 1만 임직원은 농업·농촌의 위기 앞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취임한 박 본부장은 농업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도(農道) 전남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살맛나는’ 농업환경 구축에 힘을 다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이라는 농협의 새로운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

범농협 역량 총동원 영농지원활동 가속질병 공동 대응체계 공고히 농업인 실익 제고·사랑받는 농협

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올해는 극심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갖은 지원책을 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전남농협은 영농지원발대식을 개최한 것은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영농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일손부족 경감을 위한 농기계를 관내 144개 농축협에 공급하고, 농협 임직원과 대학생봉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자체와 협력이 운영되고 있는 농촌 인력중개센터는 올해 연 23만 명 이상 영농인력 중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질병 상황도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다며 올해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신종 가속질병으로 많은 축산농업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의 즉각적인 재난안전대책 추진과 전남농협의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지원 등 전방위적인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은 조기에 종식됐습니다. 전남이 전국 한우 사육 규모 2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7건이 발생하는 동안 전남에는 단 2건의 렘피스킨 발생에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 전남농협, 축산농가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속질병에 공동 대응해 더욱 공고한 협업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농협은 올해 악성 가속질병 발생 ‘ZERO’를 목표로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소득지원을 연간 20만회 이상 실시하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남농협 101개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종탁 본부장은 끝으로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농축협과 중앙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전남농협을 구현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전남농협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촌에 ‘희망’ 심어 ‘농업의 미래’ 싹 틔운다



올해 초부터 유난히 심해진 기상변화로 농업인들은 농산물 생산에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영농인력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족하고 수입농산물은 증가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농업을 둘러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영농지원 준비에 한창인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 이하 전남농협)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희망농업·행복농촌 실현

지난 3월말 전남의 인구수는 180만 명까지 감소했다. 2017년 190만 명 수준이었으나 6년 만에 1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청년인구 이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농도(農道) 전남의 희망이 될 청년 인구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전남농협은 인구 감소가 낳은 지역소멸로 농촌에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면, 농업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이 유입되어 생기를 불어넣고, 농촌을 도시민이 휴식을 위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만 농업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전남농협은 사람이 찾는 농촌, 일이 풍부한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농촌관광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농축산물 판매사업 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민과 농업인을 위한 도농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도 추진된다.

■ 살아있는 전남농촌 구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또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를 모집해 이른바 ‘관계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농협도 이에 발맞추어 살아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도시농협과 농촌마을을 연계한 체류형 관

살고 싶은 농촌

농촌왕진버스·영농도우미 사회공헌활동 지속 추진 복지센터 양·한방법률상담 추가

사람이 찾는 농촌

도시농협·농촌 연계 관광 활성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팜스테이 마을 베이스 캠프로

일이 풍부한 농촌

청년농업인 육성 경영·유통·금융 컨설팅 제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팜스테이 마을이 농촌관광 활성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자들이 전남의 팜스테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유입된다면 지역 경제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남농협은 청년농업인도 집중 육성

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에게 경영·유통·금융 등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살아있는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농업인이 존중받는 영농정책

33년 동안 전남도민의 숙원이던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열악한 전남 농촌의 의료 환경을 해결하는데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농협은 농촌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농협의 대표 의료 지원사업인 ‘농촌행복버스’는 올해부터 ‘농촌왕진버스’로 개편해, 운영횟수를 확대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은 농촌 현장의견을 반영해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병원 입원 등으로 영농활동에 차질이 있는 농가를 대신할 ‘영농도우미’ 사업은 수혜규모를 2천 가구로 늘렸고, 건강검진과 이미지 등 광주·전남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된 ‘찾아가는 농촌복지센터’는 양·한방 진료와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영농인력 부족에 따른 농업인 예로사항이 심화됨에 따라 범농협 임직원의 전사적인 일손돕기와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전략적 운영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금은 저금리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라남도도와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이차담임 유예 등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실익 증대

전남농협은 올해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물량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급안정 사업은 농협과 농업인인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어 농업인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사업인 만큼 수급안정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자조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조금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맞서 생산자 스스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간 자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을 잘 살리지 못했으나 제도 개정을 통해서 자조금 단체의 결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와 전남농협의 수급안정 노력에 자조금 단체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농업인이 중심 되는 수급안정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 전남농협은 파종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품목별 모니터링 요원을 산지에 배치해 더 촘촘한 수급대책을 사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쌀 판매확대와 가격안정, 신품종 육성과 품질향상을 통해 전남 쌀 판매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을 대표하는 ‘새청무’는 전라남도도와 전남농협의 협력을 통해 육성된 쌀 품종이다. 이런 새청무 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급관리와 육묘를 더 철저히 하고, 계약재배농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조생종인 ‘조명’ 품종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명 쌀은 조생종인 만큼 8월부터 수확이 가능해 판매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전남 쌀 판매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질향상을 위해 쌀 가공시설과 저장시설 현대화도 추진 중이다. 해남과 고흥지역의 RPC간 통합과 동시에 신규 RPC를 건립해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노후된 양곡 저장창고는 스마트 저온창고로의 전환사업을 추진해 양곡의 신선도 관리도 노력하고 있다.

쌀 가격안정은 농협과 정부, 지자체, 농업인이 합심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지난해 전남농협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격안정 정책인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협력해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전라북도물적분배와 타지역물재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쌀 가격안정에 전남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진과 장흥지역에 가루쌀 재배면적을 추가 확보해 연간 200만 수의 수입 밀가루에 대한 수요를 국내산 가루쌀로 대체하도록 하는데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